

**“주의 종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목회자, 국가 위기 속 1,000시간 기도 촉구**



쿠바의 한 목회자가 악화되는 경제·사회 위기 가운데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1,000시간 기도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고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이 지난 23일 보도했다.

라스 투나스 주 푸에르토 파드레 지역에 있는 오순절 복음 교회 담임목사는 이미 회중과 지방 노회가 기도를 시작했다고 밝히며,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전국 교회와 기독교 협의회에 참여를 요청했다. 그는 “이 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 모든 협의회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에는 함께하길 바란다”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목회자는 매일 이어지는 정전, 식량과 의약품 부족, 깊어지는 절망감을 언급하며, 많은 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권면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행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운동을 “쿠바의 모든 필요와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답을 가져올 초자연적 개입”을 구하는 간구라고 정의했다. 또 모든 목회자와 교회가 무관심을 거부하고 공동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 이번 기도가 영적 부흥과 실제적 구호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쿠바는 현재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는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경제가 위축됐다고 발표했으며, 고물가로 인해 가계의 구매력이 크게 하락했다. 전 국민이 식량·연료·의약품 부족을 겪고 있고, 하루 수 시간 이상 정전이 이어지며 약 100만 명이 상수도 공급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

쿠바는 여전히 일당제 공산당 체제하에 있으며, 독립 언론이나 공식 야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해 3월 부족 사태와 정전을 계기로 전국 시위가 발생했지만, 미겔 디아스카넬(Miguel Díaz-Canel) 대통령은 중국산 쌀 지원을 수용하면서도 미국과 “자본주의 언론”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반체제 인사에 대한 자의적 체포와 즉결 재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며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다니엘 9:17)**

하나님, 공산주의 체제 아래 황폐해진 쿠바의 경제와 사회적 위기 가운데 주의 종들과 교회를 깨우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 주의 얼굴 빛을 비취 주십시오. 상황과 환경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모든 절망과 불안을 내쫓아주시고 십자가에 아들 내어주신 복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의 권능으로 이 땅의 모든 불법과 부정을 고치시고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채우사 주께서 행하신 구원을 노래하며 열방에 선포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 유럽 곳곳 군사기지·공항에 정체불명 드론 출몰…러시아 개입 의혹

유럽 각국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군사기지과 공항, 주요 기반 시설 인근에 잇따라 출몰하면서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연합뉴스가 AP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각국 정부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술을 의심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덴마크 국방부는 26일 밤부터 새벽 사이 스크뤼스트루프 공군기지와 월란 기병연대 등 군사시설 인근에서 드론이 포착됐다고 발표했다. 덴마크 최대 군사시설인 카루프 공군기지 상공에서도 목격담이 이어졌다. 노르웨이에서는 F-35 전투기가 주둔한 외를란 공군기지 인근에서 드론이 여러 차례 관측됐고, 오슬로 공항도 같은 이유로 운영을 멈춘 바 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 공항 역시 두 차례 드론 탐지 가능성으로 운영을 중단했으며, 핀란드 북부 로바니에미 발전소 상공에서도 드론이 목격됐다. 프랑스 북동부 무르멜롱그랑 기지에서도 드론 출몰로 보안 경보가 발령됐다. 독일은 군사기지, 방산업체, 에너지시설, 공항, 정부청사 등 인근에서만 올해 1분기에 536대의 정체불명 드론이 포착됐다. 유럽 각국은 지난 10일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침범 사건 이후 수상한 드론이 목격됐다고 잇따라 발표하며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술을 의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히스테리아자 군비 지출 확대를 위한 정치적 술책”이라고 반발했다.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시편 24:3-4,8)**

하나님, 유럽 나라들의 군사기지과 주요 기반 시설에 드론이 출몰해 나라 간의 대립과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유럽의 상황을 다스려 주옵소서. 자신이 가진 힘과 군사력으로 위협하거나 맞서려 하는 이들 안의 두려움을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깥 주십시오.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유럽교회를 들어 쓰셔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부로 만난 한 사람을 통해 유럽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 ▲ 브라질 세아라주 학교서 총격…10대 학생 2명 사망, 3명 부상

브라질 북동부 세아라주에 있는 한 학교에서 괴한이 운동장에 있던 학생들을 향해 총격을 가해 현장에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세아라 공공안전부·교육부 등에 따르면 세아라주 소브라우의 한 주립학교에서 오토바이를 탄 괴한 2명이 교내 운동장 쪽을 향해 총을 쏜 뒤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17세와 16세 학생 2명이 사망했으며, 다른 학생 3명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에는 휴식 시간이어서 운동장에 많은 학생들이 오가던 중이었으며, 소셜미디어(SNS)에 공유된 영상에는 총성이 울리자 학생들이 교실 쪽으로 놀라 달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에우마누 지 프레이타스 세아라 주지사는 “가장 심각하고 참을 수 없는 잔혹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범인 검거를 위해 지역 전역에 경찰 병력을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무차별 범죄가 아니라 특정 대상을 겨냥한 계획적 처형(Execution) 형태의 범행으로 보고 있으며, 현장에서 마약류와 저울, 포장재 등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갱단 간 마약 거래 갈등이나 보복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미 용의자 2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이들 중 1명은 과거 살인 및 강도 전력이 있는 인물로 최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3-4)**

하나님, 학교 운동장 한복판에서 학생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충격적이며 잔혹한 사건을 통해 때와 기회를 찾아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의 실상을 보게 되며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분노와 다툼, 탐심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터진 웅덩이와 같이 되어버린 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의 절대적인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는 가난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을 주시며, 그 은혜가 필요한 열방을 위해 애통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Z세대 반정부 시위, 남미로 확산... 파라과이·페루 청년 거리 집결**



기득권 부패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반발하는 Z세대 주도 반정부 시위가 동남아시아·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이어 남미에서도 펼쳐졌다. 29일(현지시간) 파라과이 경찰과 페루 내무부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전날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청년들은 공공 서비스 부실과 일자리 기회 부족 등에 대한 공분을 표출하며 거리 행진을 했다.

국민 다수의 뜻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우리가 99.9%다’라는 구호 아래 시위대는 정권 부패를 비판하며 국가 예산 투명성과 치안 개선 등을 요구했다. 파라과이 언론은 “그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뜻을 공유하다가 자발적으로 이곳에 나왔다”는 시위자들 언급을 곁들이면서, 현장에서 정당을 상징하는 깃발이나 현수막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다. 파라과이 경찰은 최루가스를 동원해 시위대 해산에 나섰고, 일부 참가자들은 돌을 던지며 이에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파라과이 당국은 “경찰관 8명이 다쳤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3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진압 과정에서 피해를 본 시위자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페루에서도 연금가입 의무화와 고용 불안정에 항의하며 정부와 국회를 규탄하는 Z세대 시위가 지난 27일 수도 리마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은 경찰관을 향해 화염병과 폭죽 등을 투척했고, 경찰은 최루가스와 고무탄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현장 기자를 포함한 최소 19명이 다쳤다고 현지 일간 엘코메르시오는 보도했다.

페루에서는 특히 그간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른 이진투구나 특정 원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 등을 기화로 한 시위가 최근 주를 이뤘으나, 이번처럼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회 불만을 집단적·공개적으로 드러낸 건 다소 드문 상황이라고 한다.

페루 역시 파라과이와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패와 결핍을 방관하지 말자”는 취지의 의견을 교환하다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네팔,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필리핀, 마다가스카르 등 최근 목격된 Z세대 시위 확산 양상과 대동소이하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땅이 썩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이사야 61:8,11)**

하나님, 기득권의 부패와 불평등에 반발한 청년들의 반정부 시위가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 남미까지 확산되어 혼란 가운데 있는 상황을 다스려 주옵소서. 정의를 갈망하는 남미의 청년들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영원한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의의세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파라과이와 페루뿐 아니라 남미의 모든 나라의 불의함을 꾸짖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의와 찬송이 솟아나게 하시고 주의 진리가 흥왕하는 부흥을 주옵소서.

## ▲ 아르헨티나, 여성 살해 장면 ‘SNS 생중계’…시민 수천 명 시위

아르헨티나에서 여성 3명이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생중계돼 현지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고 연합뉴스가 영국 BBC를 인용해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 마약 밀매 조직이 15세 소녀와 20세 사촌 자매 두 명을 납치한 뒤 고문하고 살해하고, 이를 SNS에 생중계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실종 5일 만에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 교외 지역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마약 밀매 조직이 직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동영상에는 조직의 우두머리가 “내 마약을 훔치는 자는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소리가 담겼다. 당국은 용의자 5명을 체포했지만, 주범으로 지목된 페루 국적 남성은 도주 중이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27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 수천 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으로 행진하면서 정의 실현을 요구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마가복음 7:21-23)**

하나님, 여성들을 살해하는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악을 쌓고 있는 범죄 조직을 꾸짖어 주시고 피해자 가족들을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르헨티나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 사건을 통해 부패한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뿐임을 이 백성이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신 주님의 원형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 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 ▲ 필리핀 중부 규모 6.9 지진…사망자 69명으로 늘어

필리핀 중부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69명으로 늘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AFP 등에 따르면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전날 오후 9시 59분 보홀 칼라페에서 동남쪽으로 약 11km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재난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69명이 사망했으며 최소 15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민방위청 관계자 라피 알레한드로는 “진앙지 인근인 세부 북부 보고 시의 병원은 수용 불가 상태”라고 말했다. CNN은 농구 경기가 진행 중이던 스포츠 복합시설이 붕괴하면서 필리핀 해안경비대원 3명과 소방관 1명을 포함한 13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컸다고 전했다. 이번 지진으로 세부섬 북부는 건물과 도로가 파손되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또 다른 피해 지역인 산 레미히오는 대응과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재난 사태가 선포됐다. 알피 레이네스 부시장은 이재민들을 위한 음식과 식수, 그리고 수색·구조 작업을 위한 중장비 지원을 호소했다. 필리핀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불의 고리’에 속해 있으며, 이번 강진 역시 활발한 지질 활동의 결과로 분석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시편 62:6-7)**

하나님, 필리핀 지진 발생으로 부상자와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큰 환난을 맞은 영혼들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이시요, 피난처이신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망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생명이 위중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진과 화산 활동뿐 아니라 홍수 피해도 빈번한 이 나라에 여호와의 구원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크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자신의 삶을 주께 의지할 뿐 아니라 전부로 드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숨가이트 개신교 교회 등록 거부 논란



아제르바이잔 당국이 이 나라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숨가이트에 위치한 개신교 ‘평화교회’의 등록을 거부하면서 종교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단체 포럼 18(Forum 18)에 따르면, 평화교회는 지난 4월 국가 종교 문제 위원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회 지도자인 사힌 목사는 “교인들이 함께 모든 서류를 준비해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다”며 “교회가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등록 절차가 지연되는 와중에 7월 7일 사힌 목사는 위원회에 소환됐다.

당국은 오히려 교회를 향해 등록 없이는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더 나아가 당국 관계자들은 교인 수가 70-80명에 달한다는 사실에 격분하며 목사를 “비밀 모임을 주도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사힌 목사는 국가위원회가 자신을 자주 여러 공적 행사에 초대해왔음을 밝히며 당국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포럼18은 국가위원회가 교회의 등록 신청에서 어떠한 법적 결함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모임을 열 수 없으며 등록 없이는 종교의식을 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숨가이트 교회의 사례는 아제르바이잔 전역의 광범위한 문제를 보여준다. 인권 변호사 무라드 알리에프에 따르면, 평화교회를 포함해 최소 5개 개신교 교회가 등록 신청을 했으며, 일부는 2년 이상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당국은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승인도 거부도 하지 않고 방치해 공동체들이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포럼18은 9월 18일 국가위원회에 “왜 비이슬람 단체들의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지 않고 있는가? 왜 2020년 이후 비이슬람 단체 중 단 한 곳만 등록을 승인했는가?”라고 서면 질의했으나, 당국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아제르바이잔 북부 알리아바드 침례교회는 25년간 등록을 시도했으나 계속해서 거부당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교회를 급습하고 목사들을 투옥했다. 하미드 사바노프 목사는 날조된 혐의로 2년 집행유예, 자우르 발라예프 목사는 1년간 투옥됐다.

현재까지 아제르바이잔 당국이 2020년 12월 이후 등록을 승인한 비이슬람 공동체는 바쿠의 몰몬교회(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유일하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종교 자유 제한 조치가 헌법과 국제 규범을 위반한다고 지적하며, 교회 등록 거부사실상 종교 공동체를 불법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사도행전 8:33,35)**

하나님, 공정하지 못한 당국의 이중적 태도로 인해 교회가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 모습이 마치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음을 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교회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박해를 이삼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생각하며 기도와 인내로 나아가게 하소서. 등록 없이 종교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들 안에 있는 숨길 수 없는 예수 생명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제르바이잔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예수교회가 부흥케 하소서.

### ▲ 수단 기독교학교, 이슬람 세력의 강제 점거 위협

수단 내전과 이슬람 세력의 공격 속에서 기독교학교와 난민들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수단 오므두르만에 위치한 수단 복음주의 학교가 또다시 이슬람 세력의 강제 점거 위협을 받았다. 전쟁으로 피난 온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학교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3일 이슬람계 사업가와 연계된 무슬림 3명이 경찰과 함께 난입해 퇴거를 요구하며 학교장 사무실 문을 부수는 등 강제 점거를 시도했다. 이 학교는 장로교 복음주의 교회(SPEC) 소속으로 과거 알바시르 정권 시절에도 반복적인 공격을 받아왔다. 2017년 4월, 같은 학교를 둘러싼 충돌에서 기독교 지도자 요난 압둘라 캄부 장로가 여성들을 보호하다 흉기에 찔려 숨졌고, 또 다른 장로 아유브 카마마 역시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은 바 있다. 2023년 4월 발발한 수단군(SAF)과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RSF) 간 내전은 기독교인들의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오픈도어 선교회의 2025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WWL)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들은 포격과 약탈을 당하고 신자들은 살해·성폭행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수단군과 신속지원군 모두 이슬람주의 성향을 띠며, 서로의 세력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기독교 난민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

하나님,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수단에서 수단군과 신속지원군 모두에게 공격과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수단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환난 속에서도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의의 말씀과 영원한 소망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끊임없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사탄의 간계를 파하여 주사 속히 내전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소서.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는 모든 어둠과 거짓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 ▲ 스코틀랜드, 낙태 클리닉 앞 ‘침묵 시위’ 할머니 두 번째 체포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75세 로즈 도허티 여사가 낙태 클리닉 앞에서 “강요는 범죄입니다. 원하시면 대화하러 왔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섰다는 이유로 두 번째 체포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허티 여사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낙태 시설 반경 200미터 이내에서 괴롭힘·협박·영향력 행사 등을 금지하는 스코틀랜드의 완충 구역법에 따라 기소됐다. 그녀는 지난 8월에도 같은 병원 앞에서 평화적으로 팻말을 들고 있다가 체포된 바 있으나, 당시 미국 국무부의 강력한 비판을 받은 뒤 취하됐다. 도허티 여사는 이번 체포에 대해 “누구든지 동의에 따른 대화를 나눌 권리가 있다”며 “저는 사랑과 연민으로 팻말을 들었고, 원한다면 대화할 수 있다고 초대했을 뿐이다. 대화는 글래스고 거리에서 금지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녀를 지원하는 국제 법률 단체 ADF 인터내셔널은 도허티 여사가 양쪽 고관절 수술을 받은 상태임에도 구금 중 의자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실제 완충구역보다 더 넓은 지역 출입을 금지한 보석 조건 역시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평화로운 할머니가 공공장소에서 단지 대화를 제안했다는 이유로 경찰력이 동원된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며 이번 사건이 괴롭힘이나 폭력적 시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함이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라(시편 28:5-6)**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생각하지 않고 주를 대적하는 스코틀랜드 당국과 입법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땅을 멸망케 하려는 사탄의 왕국을 주의 권능으로 파괴해 주십시오. 불의한 법제화로 인해 무고한 박해를 당하나 물려서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도허티 여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영국의 교회도 동일한 열심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생명을 멸시하는 영국을 위해 부르짖는 교회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사 속히 영국 땅에 주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케 하소서.